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8. 18.(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농산물원종장장	강태완	☎ 760-7200
		업무담당자	박정훈	☎ 760-7213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농업기술원, 가을재배용 수경재배씨감자 8.2톤 공급

-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지역농협 통해 공급...2회 이상 증식 활용 권장 -
- 고온기 씨감자 부패 예방 위해 파종시기 조절 및 관리 당부 -

□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감자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2026년 가을재배용 수경재배 씨감자 8.2톤을 공급한다.

○ 이번에 공급하는 씨감자는 국립종자원의 포장검사와 종자검사를 거친 국가보증 원종으로,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 농가에 공급한다.

□ 농산물원종장은 2009년부터 분무경* 수경재배 방식으로 무병 우량 씨감자를 생산·공급하고 있으며, 일반 씨감자보다 약 20%의 증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* 분무경: 뿌리에 양액을 안개처럼 분무해 기르는 방식

○ 이를 도내 감자 생산에 적용해 추산할 경우 연간 약 100억 원의 농가 조수입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.

□ 농산물원종장에서 공급하는 씨감자는 보급종의 상위 단계인 원종*으로, 농가에서 최대 4회까지 증식해 활용할 수 있다.

* 증식체계: 기본식물→원원종→원종→보급종

○ 2025년 도내 감자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 이용 실태 조사 결과, 수경재배 씨감자를 1회만 증식해 사용하는 농가는 27.5%로 나타났다.

- 이에 농산물원종장은 공급받은 씨감자를 1회 증식에 그치지 않고 2회 이상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.
 - 증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더덩이병은 등록된 작물보호제를 이용해 관리할 수 있으며, 씨감자를 2회 이상 증식해 활용할 경우 종자 구입비 등 농가 경영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.
- 또한 여름철 고온으로 인해 가을감자 파종기에 씨감자가 부패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파종 시기와 씨감자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- 고온·과습한 조건에서는 씨감자 부패 위험이 커지는 만큼 고온기를 피해 파종 시기를 조절하고, 파종 전 건전한 씨감자를 선별해야 한다.
 - 아울러 종자 처리용으로 등록된 작물보호제를 사용 기준에 맞게 처리하는 등 파종 초기 부패와 병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.
 - 등록 작물보호제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(pisi.rda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- 농산물원종장은 농가의 품종별 수요를 반영해 2027년부터 ‘탐나’와 ‘대지’의 생산 비율을 각각 50%로 조정할 계획이다.
- 그동안 더덩이병에 강한 국내 육성 품종 ‘탐나’의 보급 확대를 추진해 왔으나, 최근 품종별 수요와 재배 현장의 의견을 고려해 ‘대지’ 생산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.
 - 앞으로도 농가 수요와 재배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해 품종별 생산·공급 체계를 개선하고, 공급 씨감자의 효율적

인 증식·활용과 안정적인 감자 생산을 위한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.

- 박정훈 농업연구사는 “수경재배 씨감자는 최대 4회까지 증식해 활용할 수 있는 만큼 2회 이상 증식하면 종자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” 며, “특히 올해는 고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파종 시기 조절, 건전한 씨감자 선별, 등록 작물보호제의 적정 사용 등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” 고 말했다.